편집장 인사말

여름의 어원을 아시나요?

'열다'에서 비롯된 말로, 꽃이 지고 열매가 열리는 시기를 뜻해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맺은 열매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앞으로 맺을 열매는 무엇일까요? 모두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계절, 봄을 지나 어느덧 우리는 여름이라는 계절 한 가운데 서 있습니다. 봄에는 새로운 시작과 가능성을 품게 되고, 여름엔 그 시작이 조금씩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그렇게 계절이 한 걸음 나아가는 사이, 우리의 일상에서도 조그마한 변화들이 스며듭니다. 햇볕이 한층 더 깊어지고, 공기가 뜨거워질수록 우리의 옷차림은 점점 가벼워지게 되죠. 우리가 보내는 하루의 길이도 달라졌습니다. 같은 길을 걷더라도 이전과는 다른 온도와 속도로 시간이 흐르는 계절. 우리는 그렇게 여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왠지 여름은 이상한 계절입니다. 연초에 세운 계획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조급함과 아직 늦지 않았다는 안도감을 동시에 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 계절을 충분히 느끼지 못한 채 다가올 결과를 먼저 떠올리며 하루를 보내곤 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시간에 마음을 두느라, 이 순간이 조용히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기도 합니다.

과연 여름은 무언가를 맺어야 하는 계절이기만 할까요?

어쩌면 여름은 결과에 집중하기보다 그동안의 시간을 천천히 들여다보는 계절일지도 모릅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지요. 선명해지는 감정과 또렷해지는 고민,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까지도 말입니다.

우리는 늘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익숙하지만, 때론 멈춰 서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 또한 필요합니다. 얼마나 멀리 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걸어왔는지를 되짚어보는 시간. 그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시간을 단단히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닐까요.

부디 이 여름이 반드시 무언가를 이루어내야 하는 시간으로 남기보다, 잠시 속도를 늦추고 발자취를 돌아볼 수 있는 계절로 기억되었으면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 한 권의 교지가 여름의 한 장면으로, 조용히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 속 여러분의 하루가 너무 빠르게 지나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때때로 걸음을 늦추며, 지금 이 계절을 충분히 느껴보세요. 그리고 그 시간들이 쌓여, 각자만의 방식으로 의미 있는 여름이 되길 바랍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뜨겁고 치열하게 여름을 보내고 있는 모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석우인 여러분의 여름이 저마다의 속도와 의미로 채워져 소중한 열매를 맺길 바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자주 언론의 한 길을 걷는 교육 동지
38대 석우 교지편집위원회 편집장 김서현